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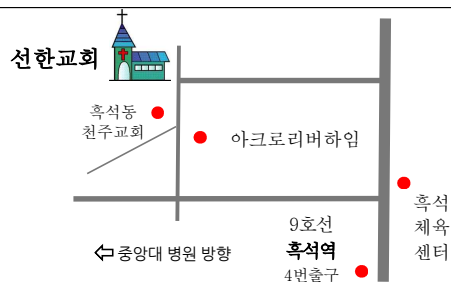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2)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9장 (통일찬송가 29장)

교 독 문

교독문 32 (시편 71편)

찬 양 과 경 배

309장 (통일찬송가 409장)

기 도

조계승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3장 1 ~ 7절

설 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잠언 강해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9월 5일 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누가복음 8장 ~ 사도행전 20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4. 장 년 부 하 계
수 련 회

장년부 수련회가 8월 27일(금) ~ 29(주일)일 진행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시 32:6)

일 정

날짜	시간	강사
27일(금)	저녁 7시 30분	신원섭 목사
28일(토)	오전 10시	이정필 목사
	오후 3시	유성은 목사
	저녁 7시 30분	김대열 목사
29일(주일)	오후 3시	원종선 목사

5. 교 우 동 정

소천 : 황명준 성도님께서 8월 3일 소천하셨습니다.

교육부서 비대면 수련회 일정

청소년부	청년부
일정 : 8.1 ~ 9.6 (주일) 주제 : 구약 파노라마	일정 : 연기(추후공지) 주제 : Fulfillment and Process 강사 : 오인숙 선교사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통 414)

본문 :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혼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진리에 입각해서 함께 기뻐한다'로 나옵니다. 약간 차이가 나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와 '진리에 입각해서 함께 기뻐한다'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언뜻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진리에 입각해서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에 입각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로 읽으면 정확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했어요. 탁월한 번역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덕목을 죽 나열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이름만 달랑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소스데네 디모데 실루아노 등 바울의 편지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일을 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혼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바울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도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기는 잘하지만 뒷수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뒷수습하는 일은 디모데가 맡아서 했습니다. 적대자들과 대결하고 싸우는 일은 잘했지만 화해하고 다독거리는 일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디도가 적임자였습니다. 또 설교는 잘했지만 찬송 부르는 일은 좀 서툴렀습니다. 찬송은 실라가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실라가 찬송을 부르니까 바울도 따라 불렀고 모든 죄수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실라는 확실히 찬송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했습니다.

혼자 기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 목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 (고전13:1-7)

서 론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공통적인 덕목은 사랑입니다.

1. 사랑이 없으면

- (1)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팡파리가 됨(1절)
- (2) 내가 아무것도 아님(2절)
- (3) 내게 아무 유익이 없음(3절)

2. 사랑이 있으면

- (1) 오래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함(4절)
- (2)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5절)
- (3)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6절)
- (4)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7절)

본 론

3. 교훈

- (1) 나의 삶과 섬김 속에 사랑이 있는가?
- (2)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 (3) 내가 채워야 할 부족한 사랑의 요소는 무엇인가?

결 론

모든 사역과 삶에 사랑이 항상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권력에 대한 욕망의 대물림	날짜 : 8월 23일
찬양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본문	사사기 9:1-15		
말씀요약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대신 골육인 자기를 섬기라고 설득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은을 내주자 그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형제들을 죽입니다. 막내 요담만이 살아남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거절한 왕의 자리를 가시나무가 차지했다고 외칩니다.		
목상질문 1	아비멜렉의 권력 찬탈 9:1-6 아비멜렉이 세겜 지역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목상질문 2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 예고 9:7-15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나의 본분을 지킬 자리는 어디인가요?		
한절목상	사사기 9장 4절 하나님 백성은 신실하게 하나님 왕권에만 충성합니다.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방탕한’은 본래 ‘헛된’이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변덕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의 권면을 잊은 타락한 백성이 거짓 왕권에 그들의 충성을 바친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충성은 헛될 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충성’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개인의 타락이 가문의 비극과 공동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혈연, 학연, 지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들이 각 영역에 세워지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심판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292, G) 당신은 영광의 왕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선교지를 후원하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축복하며 교회의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선교에 주로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외국의 선교학 교수를 초대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신학자와 대담하며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신학자는 웃으면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을 위해 더욱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전해지는 세계 곳곳의 뉴스가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산불이나 지진이 난 지역, 난민이 몰려들어 문제가 발생한 지역,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곳,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난 곳, 질병과 가난, 전쟁과 재해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뉴스들이 모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더욱 힘을 얻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음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증거이지만,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주 내가 접한 세상의 소식은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 나누기	사사기 9:16~25
목상포인트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 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합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야욕을 이루고자 온갖 계략과 폭력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멸합니다. 성도는 욕망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확신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악에 대항해 선하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이 채워집니다. 또한 죄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고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말로 지탄했나요? 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나요?(16~21절)
적용하기	개인적 야망과 탐욕이 주변에 끼친 악영향의 사례를 나누어 보세요. 진실함과 의로움을 저버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기	제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주님의 징계에 담긴 '속히 돌아오라'는 외침	날짜 : 8월 27일
찬양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본문	사사기 10:1-9		
말씀요약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여덟해 동안 억압하고, 암몬이 요단을 건너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목상질문 1	사사 돌라와 야일의 행적 10:1-5 사사 야일의 가족에 대한 소개(4절)은 무엇을 시사하나요? 하나님 종으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목상질문 2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징계 10:6-9 배교한 이스라엘의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쉬운 세상 유혹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10장 7절 한 민족을 사고파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십니다. 하지만 영영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죄인)를 되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어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할 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제 삶에 몰아친 곤고함과 억압이 '악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가폰 소리는 아닌지요. 남 탓과 원망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 돌이켜 살게 하소서.		

매일 Q.T.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리면 악한 영이 쉽게 틈잡니다	날짜 : 8월 24일
찬양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본문	사사기 9:16-25		
말씀요약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으나며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년 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세겜 사람들을 향한 요담의 책망 9:16-21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 왕권에 대한 도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만을 진실하고 의롭게 섬기도록 내가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9:22-25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내가 힘쓸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9장 23절 하나님은 진실한 연합을 원하시고 더러운 연합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고 '어지러운 마음'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맺은 계산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 배반으로 끝납니다.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지만, 악한 영은 사람 간의 경박한 연합을 깨뜨립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맺은 여합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옳지 않은 연합을 끊으시는 하나님! 곳곳에 얽힌 인간관계를 성령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거짓과 불의를 도모하는 모임을 흠어 주소서. 지체들과 제가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매일 Q.T.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	날짜 : 8월 25일
찬양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본문	사사기 9:26-45		
말씀요약	세겜 사람들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신뢰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가알의 말을 들은 방백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매복했다가 성을 엄습하라고 권합니다. 다음 날 가알은 스불의 부추김으로 성 밖에 나가 싸우다가 아비멜렉의 추격을 받고 도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성을 정복하고 소금을 뿌립니다.		
목상질문 1	에벳의 아들 가알의 선동 9:26-33 아비멜렉과 가알은 어떤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나요? 주변 사람을 선동하고 이간하는 행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목상질문 2	세겜을 향한 아비멜렉의 징벌 9:34-45 아비멜렉이 세겜에 소금을 뿌려 저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한절묵상	사사기 9장 45절 에베의 자리가 다툼과 최악의 장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겜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가알과 싸워 그곳을 피로 물들였으며, 결국에는 소금을 뿌려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의 자리에서 사람이 높아지자 그곳이 황폐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높아져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가알처럼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선동에 미혹되어 누군가를 추종하다가 또다시 선동에 미혹되어 결국 비참해지는 이들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세력에 반복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제 중심을 주님 말씀에 붙들어 매게 하소서.		

매일 Q.T.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날짜 : 8월 26일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사사기 9:46-57		
말씀요약	아비멜렉은 보루에 불을 놓아 세겜 망대 안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가 데베스의 망대를 공격할 때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그의 머리 위로 내려 던집니다.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무기 든 청년에게 죽여 달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아비멜렉에 의한 세겜 망대 심판 9:46-49 분노한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나요?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결국 자신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목상질문 2	무명의 여인에 의한 아비멜렉 심판 9:50-57 분노와 잔인함으로 가득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떠했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분노와 복수심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사기 9장 56-57절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만 사사가 되던 시절,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피흘려 쟁취하고 불의를 동원해 유지했던 그의 왕권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도전을 공의로 갚으십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통해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악행을 갚으시고 저주를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무릎 꿇습니다.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평평거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분노, 잔인함, 폭력성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게 하소서.		